

남북경협 기대감 고조... '보험 블루오션' 선점 준비를

리스크 관리 보험 상품 필요성 제기
민간보험사, 시장 참여 적극 검토해야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민간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온다.

과거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입주 기업들의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액이 수 천 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향후 후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 대상 보험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1년여 간 기업들이 입은 총 손실액은 1조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전체의 21%에 달하는 3147억원으로 집계된다.

다만 당시 개성공단 업체 104개사 가운데 경험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2945억원으로 영업손실액에 크게 못미쳐 기업들의 피해가 컸다. 경험 보험금으로 업체당 28억3000만원이 지급됐지만 10여 개사는 손실 규모가 보험 한도를 초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고 발생지역이 북한(개성공단)이다 보니 사고 조사

와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남북 경제 교류 관련 보험인 교역보험의 경우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협·교역 보험은 북한의 신용도나 현장 사고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통 일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이다. 남북 협

력기금을 수탁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이 운영한다.

실제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남북경협 보험제도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도입한 경험보험의 경우 기업별 보험 가입 한도는 2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2006년 50억원, 2009년 70억원

로 보장 한도를 올렸지만 기업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당시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고 원인 조사 등 한계가 있는 만큼 사고 발생 후 보험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 손실을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 등 상품 개발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 들어 잇단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경험 사업 재개가 전망되면서 교역보험 등 리스크 관리 상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선 금융당국은 물론 민간 보험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의 경우 북한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험 보험 시장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보험 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삼성증권 "한반도 번영의 시대 도래"

업계 첫 북한투자전략팀 첫 리포트
'한반도 CVIP의 시대로' 발간

업계 최초 북한 전담 리서치팀인 삼성증권의 북한투자전략팀이 13일 첫 리포트를 내놨다.

리포트 제목은 '한반도 CVIP(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의 시대'다. 제목에 담긴 의미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남북의 통일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그동안 독일의 통일과정을 참고해 활용했던 이른바 '통일비용'이 일시적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규모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북미회담의 후속조치로 점진적인 경제개방과 통합이 진행될 경우 이보다 적은 '통합비용'으로 경제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북·일 수교과정에서 대일청구권이 이슈로 부상하면 이는 북한 재건의 종착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 팀장은 "지난 2002년 북한 김정일과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북·일 평화선언 제



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 /삼성증권

결 당시 100억 달러 수준에서 청구권 자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며 "북한이 이 자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경제재건의 종착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재건의 우선 목표는 낙후된 인프라 조성이 될 것으로 봤다.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경제개방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5대 경제특구와 19대 경제개발구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남북 경협이 보다 발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렌탈케어+할인혜택' 카드사 렌탈시장 공략

실적위기로 수익원 창출 나서
2020년 시장규모 40조원 육박

카드사들이 렌탈가전업체와 손잡고 렌탈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렌탈시장이 확대되면서 고객의 니즈가 발생한 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실적위기로 새로운 시장을 찾아 수익원을 창출해야 하는 카드사의 고심이 깊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렌탈 회사와 제휴를 맺거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렌탈제품을 통한 수익원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 모두 렌탈 관련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렌탈 품목은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식기세척기·안마의자·의류건조기·학습기 등 다양하다.

실제로 삼성카드는 지난해 '삼성카드 렌탈' 플랫폼을 오픈해 생활가전 뿐만 아니라 유명작가의 그림, 건강 및 취미관련 상품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카드는 '라이프샵 렌탈' 서비스를

<카드사 렌탈 서비스 혜택>

카드사	플랫폼명	혜택
삼성카드	삼성카드 렌탈	• 렌탈료 자동납부신청시 최대 14%의 할인 (36개월) • SK매직, 코웨이, 청호나이스, 바디프렌드, 등의 업체와 제휴 • 생활가전(TV), 유명작가의 그림, 건강 및 취미 관련 상품 등 새로운 렌탈 상품 추가
신한카드	스마트렌탈	• 렌탈료 자동납부신청시 월 최대 1만 5000원까지 할인 • 구입할 때 목돈이 들어가는 가전, 가구 등에 대해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매월 렌탈료만 받는 서비스
우리카드	위비마켓 렌탈	• 렌탈료 자동납부신청시 월 5000원 할인 (24개월) • LG전자, SK매직과 제휴
하나카드	렌탈 전용몰	• 렌탈료 자동납부신청시 렌탈료 금액에 따라 하나머니 차등 지급 • SK매직과 제휴

/자료=각 사 홈페이지

제공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정수기부터 자동차까지 모두 렌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리카드는 '위비마켓 렌탈' 플랫폼을 통해 LG전자와 SK매직 가정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렌탈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렌탈시장의 밝은 전망이다. 1인 가구 증가와 경기불황 등으로 국내 렌탈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데다 고객들이 구매보다는 렌탈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생활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T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렌탈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1년 15조5000억원에서

2016년 25조9000억원대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4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하나는 '꾸준한 수익발생'이다. 렌탈의 경우 렌탈료 자동이체신청이 되면 카드사에 꾸준한 수익이 발생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 아파트 관리비 처럼 꾸준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고객에게 다양한 할인도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라며 "렌탈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객에 맞춤형 다양한 상품을 내놓기 위한 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자영업자 대출 급증한 상호금융 경영진 면담

감독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신협과 농협을 방문해 건전성 관리강화와 리스크관리방안 등에 대해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면담 대상에 오른 조합은 신협 16개, 농협 16개로 총 32개다.

최근 규제 강화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여전히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 4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234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0.2%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49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9%나 늘었다.

금융원은 조합별 개인사업자대출의 현황·특징, 급증사유 및 건전성 현황과 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해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당조합별 자금 조달·운용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함께 부동산 등 특정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금융원은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모니터링 대상조합을 50개에서 60개로 확대하고, 신협중앙회 등 각 중앙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줄지 않는 코스닥 불성실공시... 올 46건 지정

공시 전문인력·시스템 부족 등 원인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13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말 현재까지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지정건수는 46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건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건수는 2014년 48건에서 2016년 72건, 2017년 71건으로 증가세다.

반면 유가증권 기업은 2017년 11건에 불과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으로는 중요 사항에 대해 공시의무가 있음에도 공시를 하지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세부내용>

	2014	2015	2016	2017
최대주주·경영권 변동	9	10	10	18
유상증자	7	4	9	10
단일판매·공급계약	6	3	6	4
대출·사채원리금 미지급	5	1	2	1
실적예측공시	2	4	2	2
조회공시	2	2	7	0
타법인주식 취득·처분	2	10	6	8
최대주주의 주식담보 제공	2	1	14	5
소송	1	8	2	5
기타	12	10	14	18
합계	48	53	72	71

(단위: 건)

/자료=한국거래사 공시시스템

않는 경우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미 공시한 사항에 대해 반복해 제재

받는 경우도 증가 추세다.

코스닥 기업의 지정건수가 유가증권 기업에 비해 많은 이유는 코스닥 상장기업 수의 증가 및 공시 전문인력 부족, 기업 내부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부족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시장연구원 홍지연 선임연구원은 "최근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지정건수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코스닥 기업의 공시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 못지않게 기업 내부의 공시 전문인력 확보와 공시 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통한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